

TV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30 굿모닝 A 1부	00 KBS 뉴스광장	00 튠튼생활체조 0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스페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10 아침경제 골든타임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8 10 굿모닝 A 2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9 00 신문이아기 들쭉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1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자전거 55 튠튼생활체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네트워킹 특선 <불동>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15 사랑의 가족 45 생생정보통 플러스	00 주말드라마 <장미빛 연인들>(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50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MBC 정오뉴스 20 일일 연속극 <소원을 말해봐>(재)	00 SBS 12 뉴스 30 닥터365 35 세상발전 유레카
1 30 뉴스 특급	00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05 앙코르 MBC 다크프린트 사제부일제 교육을 말한다	35 한국의 맛(재)
2 40 직인직실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MBC 스포츠 2014 경주국제마라톤	00 SBS 뉴스 10 건강 클리닉(재)
3 55 정오판의 시사병법	00 KBS 뉴스 10 스마트 교육이 물러온다	00 키오카(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재) 55	00 MBC 경제뉴스 10 보글 쿡 원정대 40 헬로킴지 아하동물탐험대	10 다크드라마 <역사를 만든 사람들>(재)
4 55 하중대의 쾌도난마	00 시사진단 55 튠튼 생활 체조(재)	00 TV유치원 콩다콩 30 마법 천자문	10 내꺼야 플록 30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킴지	00 최강 탐플레이트 30 귀리기 탐구 생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 마음의 크레파스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정보통	20 MBC 스포츠 2014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3차전 <NC·LG>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밤상	50 일일 드라마 <배구기 동지>		10 시사타치 때마다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8 20 모쿠 드라마 <싸인>(재)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정보통 플러스 55 기획 법상의 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특별기획 코리아 지오그래피 50 송터	00 수목 드라마 <아이언맨>	10 MBC 뉴스데스크 40 수목미니시리즈 <내 생애 봄날>	00 드라마 스페셜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11 00 웰컴 투 시월드	00 KBS 뉴스라인 40 다시보는 불멸의 이순신	15 해피 투게더	55 MBC 다크프린트	15 자기야
12 20 카톡쇼 S ①:30 신대동여지도(재)	50 네트워킹 파워특선 이현철의 울긋유지 ①:40 생활의 발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다크멘터리 3일 ①:35 리얼 체험 세상을 본다	50 스포츠와이드 15 스포츠 클라이밍 세계선수권대회	35 나이트 라인 ①:05 풋볼 매거진 골!

“음악은 나의 힘”

바비킴, 4년만에 '겨울' 발매



“지난 4년간 여러 일이 있었어요. 추락 사고를 겪고 입원 기간 심리적으로 힘들었어요. 작년에는 가까운 친구가 하늘로 떠났죠. 무명 시절이 10년이었고 2004년 알려진 뒤로는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저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죠.”

4집 ‘겨울’ 쇼케이스에서 바비킴(41·사진)은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음악을 하니 치료가 되더라. 역시나 음악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앨범은 지난 2010년 3집 이후 4년 만에 발표하는 정규 앨범이다. 솔(Soul) 음악 12곡이 수록된 앨범 전체 프로듀싱을 바비킴이 직접 맡았다. 앨범 제목이 ‘겨울’이다. 자연스럽게 앨범에서 그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는 “4년간 내 모든 시간을 거울에 비추듯 앨범에 담았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었는데 다시 음악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 것 같다. ‘자화상’의 이미지가 앨범의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타이틀곡 ‘사과’는 애절함이 묻어나는 발라드다. 트럼펫 연주자인 아버지 김영근의 연주가 애잔함을 느끼게 한다. 심야송라이터 이적이 작사를 맡았다.

바비킴은 ““그래의 꿈도 아버지께서 참여하셨는데 그때부터 이번에도 처음부터 정했던 것이 아는데 모두 타이틀곡이 됐다. 아버지께서 노래를 더 빛나게 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이적에 대해서도 “친구이지만 함께 작업해서 영광”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아버지는 제 노래에 평가를 별로 안 하세요. 궁금해하실 때마다 조금씩 들려 드린 것인데 ‘역시 네가 곡을 써야 노래 감정이 풍부하게 나오구나’라고 말씀해주

셨죠.”

‘굿 상’은 타블로의 아내인 배우 강혜정의 작사가 데뷔 작이고, ‘나만의 길’은 가수 휘성이 가사를 썼다.

바비킴은 ““굿 상”은 밝은 리듬의 어깨를 들쩍일 수 있는 노래다.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강혜정 씨의 너무 행복한 모습을 봤고, 연기를 할 때는 감수성도 되게 풍부하시더라. 타블로를 통해 물어서 함께 작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록과 힙합의 조화가 이뤄진 ‘스타’와 재즈와 CCM(복음성가) 색깔이 묻어나는 ‘사막의 밤은 깊어라’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시도했다.

바비킴은 이날 드림콘서트, 다이아믹뮤오 등 자신이 과거 함께한 ‘무브먼트 크루’ 소속 힙합 뮤지션들을 떠올리며 “내가 무명 시절을 벗어나도록 많이 위로하고 도와준 친구들이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뭉쳐서 공연하거나 앨범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제는 다들 각자 먹고살기 바쁜 것 같다”면서 “얼마 전에 개코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내 성대모사를 했기에 전화해서 적당히 하라고 했다”며 웃었다.

바비킴은 올해 말에 4개 도시를 돌며 밴드 YB와 합동 콘서트를 한다. 이어 내년 봄에는 단독 콘서트를 열 계획이다.

“제가 원래 욕심이 많고 이적이지요. 한 장르를 끝기보다는 여러 가지 섞인 것 같아요. 한국에 온 지 20년째인데 갈수록 제 안의 한국적인 멜로디나 흐름, 편곡이 강해져요. 한국에서의 삶이 음악을 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 장르에 관심이 많아져서인지 굳이 ‘어떤 가수냐’ 물으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35 뜨개바루	13:50 뛰뛰 뿔뿔 울리	17:15 밥보밥의 파오파오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09:40 부모	14:00 시계마을 티키투	17:30 로보카 폴리
06:10 세계의 눈 (특선)	10:1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4:15 치료와 친구들	17:45 뽀롱뽀롱 뽀로로
07:00 시계마을 티키투(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4:30 미술탐험대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07:15 곤(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4:45 미앤마이로봇	19:00 곤
07:30 책과 땅(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9:30 EBS 뉴스
07:45 로보카 폴리(재)	12:00 세계음식기행	15:15 어린 왕자	19:50 달라졌어요(재)
08:00 땀방울 유치원	12:00 EBS 정오 뉴스	15:30 정글북	20:40 다크 오늘
08:20 뽀롱뽀롱 뽀로로(재)	12:10 연중기획	15:45 오피와 친구들	20:50 세계테마기행
08:35 방귀대장 뽀롱이	13:05 역사채널	16:00 땀방울 유치원	21:30 한국기행 <칠산바다>
08:50 How-만들어 볼까요	13:10 부모평생(재)	16:20 버블버블 마린	21:50 EBS 스포츠 프로젝트
09:05 밥보밥의 파오파오(재)	13:40 내 이름은 펑키	16:35 윈드 볼즈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9: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6:45 How-만들어 볼까요(재)	23:35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17:00 방귀대장 뽀롱이(재)	24:05 역사채널 e(재)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703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11:40 박범의 이숙모 만나는 경제	07:00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강좌	15:50 " (과학 4-2)
00:50 " (한국사)	12:15 703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07:30 실험관찰 비법 노트 (5-2)	16:20 " (과학 5-2)
01:40 수능특강 light	13:05 " (수학 I B형)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50 " (과학 6-2)
02:30 " (영어-듣기)	14:00 " (국어 B형)	08:30 매경 TEST 시험대비 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03:20 뉴 탐스런	14:50 " (화학II)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18:00 TV 중학 (수학집중 6-2)(재)
04:10 " (과학)	15:40 " (생명과과학II)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8:00 TV 중학 (역사(하))
05:00 " (한국사(하))(재)	16:30 " (지구과학II)	09:50 " (영어 1)	18:40 " (사회 3)
05:50 2013 포스 (미적분과 통계 기본)(재)	17:20 " (사회문화)	10:30 " (도덕 2)	19:20 과학탐정단, 시드
06:40 압축탐스런 (지구과학 I)	18:10 " (경제)	11:10 " (국어③④)	19:30 EBS 초등 창의·융합 사고력
07:30 2014 포스 (문학II)	19:00 " (영어)	11:50 " (영어 2)	수학 UPI-3, 4학년
08:20 수능특강 light(영어-독해)(재)	20:00 EBS-N제 (국어 B형)(재)	12:30 등업산공	(사회 1) 20:00 EBS 인문학 특강
09:10 " (영어-듣기)(재)	21:00 " (수학 B형)	13:10 " (역사 1)	20:50 EBS 기획시리즈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22:00 인터넷 수능	13:50 " (역사 2)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0:50 2013 포스		14:30 " (사회 2)	22:00 등업산공 (과학 3-2)
		15:20 만점왕 (과학 3-2)	22:40 중학e포스 영어독해 (주제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3일(음 9월 30일 丁卯)

子	36년생 중용의 도를 다하자. 48년생 오해하지 않도록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60년생 고정 관념을 깨어 새로운 것이 보인다. 72년생 보충해줘야만 한다. 84년생 귀한 욕이 진흙 속에 파묻혀 있을 뿐이다. 행운의 숫자 : 85, 57	午	42년생 착실한 실행이 앞찬 결실을 맺게 하는 배제가 되어 줄 것이다. 54년생 일일이 대응할 필요까지는 없다. 66년생 대화로 써 풀어나가야만 할 것이다. 78년생 일관되게 지속한다면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8, 71
丑	37년생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보면 만족하리라. 49년생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61년생 소홀함은 곧 실패로 이끈다. 73년생 대범하게 넘어가라. 85년생 예리한 관점으로 이해해라. 행운의 숫자 : 10, 75	未	43년생 단기간 지낸 될 수도 있으나 분명히 성사는 되는 태양이다. 55년생 소신껏 행한다면 확실한 인정받을 수 있다. 67년생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의미가 있다. 79년생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방심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83, 92
寅	38년생 현재의 국면이 매우 중요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소홀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50년생 동기 부여가 절실한 마당이다. 62년생 보완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74년생 의식의 전환이 용이하다. 행운의 숫자 : 18, 34	申	44년생 남의 탓으로 돌린다면 자기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56년생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일들이 발생 하겠다. 68년생 중정을 잃지 말고 자기 일에 열중하자. 80년생 뜻밖의 지출이 예상되니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 46, 06
卯	39년생 숙단 하고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니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51년생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자. 63년생 오르막길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내리막길에 이르는 법이다. 75년생 명쾌하게 대처하자. 행운의 숫자 : 64, 02	酉	45년생 성사를 희망한다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라. 57년생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다방면의 득이 있다. 69년생 믿음이 전체 되지 않는다면 개입하지 마라. 81년생 대처한 다면 막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5, 15
辰	40년생 자신의 주관에 사로잡힌다거나 과잉 판단을 한다면 손실이 따른다. 52년생 공물어 왔던 것이 반쯤되어질 수도 있는 토대이다. 64년생 실행의 규모와 정도에 따른 차이가 크다. 76년생 차질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6, 52	戌	46년생 순발력을 발휘한다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58년생 발전적이고 생산적으로 나아가야한다. 70년생 제대로 꿰뚫고 있어야 한다. 82년생 불상사가 터질 수도 있으나 배팅목도 보인다. 행운의 숫자 : 87, 24
巳	41년생 표현의 방법과 기교에 정성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53년생 매우 희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 65년생 기다려왔던 것을 실행해야 할 적기이다. 77년생 일일이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43, 27	亥	47년생 내심과 표면상의 명분은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낫다. 59년생 전반적으로 외부 활동의 효과가 크다. 71년생 기회는 한 정 되어 있느니라. 83년생 예상하지 못했던 신기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9, 5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쟁쟁한 드라마 제치고 최전성기

아날로그적 감성 전달로 한달간 시청률 1위

지상파 3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월·화·수·목요일 밤 10시 드라마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외의 주자가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바로 이들과 같은 시간 방송되는 KBS 1TV ‘가요무대’다. 흘러간 노래와 트로트를 부르며 향수와 추억을 되새기는 이 프로그램이 온갖 화려한 스펙과 스케일 무장한 드라마들을 제치고 있는 것이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 방송되는 ‘가요무대’는 지상파 3사 월화 메인 드라마와 같은 시간에 경쟁하느라 평소에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한달여 지상파 평일 드라마가 화제작 하나 없이 시청률에서도 재미를 못 보면서 ‘가요무대’가 월요일 밤 최강자로 떠올랐다. ‘가요무대’는 최근 4주 연속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일 시청률은 13.8%로, 같은 시간 방송된 MBC TV ‘야경꾼이지’는 11.5%, SBS TV ‘비밀의 문’은 6%, KBS 2TV ‘내일도 칸타빌레’는 5.8%였다. ‘야경꾼이지’보다도 2%포인트 이상 높은 성적인데

다, ‘비밀의 문’과 ‘내일도 칸타빌레’에는 더블 스코어 승이다. 한석규, 이재훈, 정일우, 정윤호, 주원, 심은경 등 스타들이 즐비하게 출연하는 드라마가 스타의 이름값을 못하는 완성도를 보이면서 이들 드라마에 비하면 제작비가 한참 낮은 ‘가요무대’가 동시간대 시청률 왕좌에 오른 것이다.

이날 ‘가요무대’는 ‘향수에 젖어’라는 타이틀 아래 현철, 실순도 등이 출연했다. ‘가요무대’는 그에 앞서 지난달 29일, 지난 6일, 13일에도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제작진은 22일 “‘가요무대’가 4주 연속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이어 “유행가를 들려주는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이 아닌, 시대와 사회, 계절과 인생을 함께 얘기하는 프로그램인 데다 변화무쌍한 시대에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전달해 주는 것도 강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